

【어원 탐구】

‘고드름’의 語源과 意味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겨울철 눈이 내린 얼마 뒤는 대체로 기온이 상승하여 포근해진다. 그쯤에서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하여 땅에 물이 스미고 물받이가 없는 지붕에서 눈석임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런데 눈이 녹는 시점에서 바깥 기온이 갑자기 零下로 떨어지면 그 녹은 물은 영락없이 얼어붙는다. 길가에 빙판이 생기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것이다.

‘고드름’은 눈 녹은 물이 처마 끝이나 바위 모서리로 흘러내리면서 얼어붙어진 얼음 덩어리를 말한다. ‘얼음 기둥’과 같은 모양이어서 ‘氷柱’라고도 하고, 처마나 바위에 달려 있는 형상이어서 ‘懸氷’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고드름’을 뜻하는 한자어의 어원은 분명하나, 고유어로 간주되는 ‘고드름’의 어원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얼음 덩어리’라는 점, 그리고 ‘고드름’이라는 단어가 ‘얼음’과 유사한 어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음’이라는 단어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조어 구조일 것이라는 추정은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드름’이라는 단어가 ‘얼음’과 관련이 있는 어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얼음’이 어떤 다

른 요소와 결합된 형태에서 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다른 요소를 찾아야만 어원 추적이 가능해진다.

물론 ‘얼음’ 이외의 합성 요소를 찾아 ‘고드름’의 기원형을 재구하는 것으로 ‘고드름’의 어원 추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원형을 재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대국어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으며, 지금의 ‘고드름’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정착한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고드름’의 어원론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드름’에 대한 어원설은 적지 않지만, 주로 조어 구조라는 한정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도 단편적인 기술에 불과하여 ‘고드름’의 어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업적을 토대로, ‘고드름’의 起源形은 무엇이고 그 어원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고드름’이 직접 어떤 단어로 소급하며 그 단어로부터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정착하였는가를 문헌 자료와 방언 자료를 활용하여 해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방언 자료를 통해 ‘고드름’의 기원형을 재구하고, 동일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합성어¹⁾들을 참조하여 그 기원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2

‘고드름’과 관련된 중세국어 어형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어형은 18세기 문헌에 보이는 ‘긋어름’이다.

- (1) ㄱ. 긋어름 簷水氷 <역어유해보 6>
- 나. 긋어름 簷凌 <몽어유해보 2>
- ㄷ. 긋어름 簷水氷 <방언유석, 해부방언 10>

1) 여기서는 ‘합성어’를 ‘복합어’와 ‘파생어’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긱어름’은 일단 ‘긱’과 ‘어름’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후행 요소 ‘어름’은 ‘氷’의 뜻이 분명하다. ‘氷’은 15세기 이래 근대국어까지도 ‘어름’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대국어 ‘고드름’이 18세기의 ‘긱어름’의 후대 형태라면, ‘고드름’이 ‘氷’의 ‘어름’을 포함하는 합성 형태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드름’이 ‘어름’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 형태라는 사실은, 18세기에 보이는 ‘긱어름’을 참고로 했든 하지 않았든, ‘고드름’의 어원을 다룬 거의 모든 논의들, 즉 이탁(1946), 서정범(1988, 2000), 안옥규(1989), 홍윤표(1994), 김민수 편(1997), 조항범(1997), 고동호 외(2002)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²⁾

문제는 ‘어름>얼음’에 선행한 합성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설이 제기되어 있다. 첫째는 형용사 ‘곧다(直)’의 어간 ‘곧-’이나 그 관형사형 ‘곧은’으로 보는 것이다. 이탁(1946), 안옥규(1989 : 32)가 ‘곧은’으로 보고 있다면, 홍윤표(1994), 조항범(1997 : 324-325), 백문식(1998 : 39), 고동호 외(2002)는 ‘곧-’으로 보고 있다. 이탁(1946)과 안옥규(1989 : 32)는 18세기의 ‘긱어름’을 보지 못하고 단지 고드름의 외양적 인상에 이끌려 ‘곧다(直)’와 연결시킨 것이고, 홍윤표(1994), 조항범(1997 : 324-325), 백문식(1998 : 32), 고동호 외(2002)는 18세기의 ‘긱어름’을 보고 ‘긱’의 종성 ‘ㄷ’이 ‘ㅅ’으로 표기될 수 있음을 전제한 뒤 ‘곧-(直)’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는 명사 ‘긱(串)’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김민수 외(1997 : 84)에서 확인된다. 이 또한 18세기 문헌에 보이는 ‘긱어름’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그 형태 변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어떠한 근거로 ‘긱’을 내세운 것인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고드름’이 뽕죽한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과 ‘긱’의 받침 ‘ㅈ’이 중화되어 ‘ㅅ’으로 표기될 수 있

2) 이탁(1967)에서만 ‘어름>얼음’이 아니라 ‘얼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얼음’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추정컨대 ‘얼음’은 ‘얼음(氷)’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이미 이탁(1946)에서 ‘고드름’을 제시하고 ‘곧은 어름(얼음)’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얼음’을 ‘얼음’ 이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는 점에 근거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셋째는 ‘氷’을 뜻하는 명사 ‘*곧’으로 보는 것이다. 서정범(1988, 2000 : 49-50)에 그러한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서정범(1988)은 18세기 문헌에 보이는 ‘곶어름’과 무관하게 ‘고드름’을 ‘*곧’과 ‘얼음’으로 분석한 뒤 ‘*곧’을 ‘氷’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며, 서정범(2000 : 49-50)은 ‘곶어름’의 ‘곶’을 ‘*곧’의 변화형으로 보고 ‘곧’을 ‘氷’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드름’은 ‘氷’의 의미를 지니는 명사 ‘곧’과 ‘어름’이 결합된 同義 重複形 단어가 된다.

이들 세 가지 설 가운데에서 ‘곧-(直)’ 설과 ‘곶(串)’ 설은, ‘곶어름’에 보이는 ‘곶’의 받침 ‘ㅅ’이 ‘ㄷ’이나 ‘ㅈ’의 표기일 수 있다는 점과 지시물이 곧거나 뾰족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곧’ 설은 ‘*곧(氷)’이라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또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고유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造語 方式³⁾이 생산적이지 못하다⁴⁾는 점에서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곧-(直)’ 설과 ‘곶(串)’ 설 중에서는 어떤 설이 더 합당한 것인가? 18세기 문헌에 보이는 ‘곶어름’과 지금의 ‘고드름’만을 고려하면 ‘곧-(直)’ 설을 쉽게 지지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근대국어 이후 중성의 ‘ㅅ’과 ‘ㄷ’이 극심하게 混記되다가 18세기 이후 ‘ㅅ’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곧어름’이 얼마든지 ‘곶어름’으로 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ㄷ’이 ‘ㅅ’으로 바뀌어 표기되더라도 그 발음은 [ㄷ]이기에 ‘곶어름’이 연철되면 ‘*고드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그동안의 많은

3) 임지룡(1992 : 145)에서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동의 중복형 복합어로 ‘가마솥, 끼때, 뜰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마솥’의 ‘가마’는 기원적으로 ‘가마골, 가마소, 가마재’ 등의 地名에 보이는 ‘가마’와 같이 ‘大’의 뜻으로 이해되고, ‘끼때’는 ‘끼니때’의 준말로 추정되어 이들을 동의 중복형 단어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4) 반면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고유어 명사와 한자가 결합된 유형,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한자와 고유어 명사가 결합된 유형은 아주 일반적이다. ‘담장(-牆), 속내(-內), 바람벽(-壁)’ 등은 전자의 예이고, ‘본밑(本-), 족발(足-), 연못(淵-)’ 등은 후자의 예이다.

논의에서 ‘곧-(直)’ 설을 지지해 온 것이다. 아울러 ‘*고더름’으로부터 ‘고드름’까지의 변화 과정⁵⁾이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도 ‘곧-’ 설을 지지하게 한다.

그러나 ‘곧-(直)’ 설은 ‘고드름’의 방언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드름’에 대한 일부 지역의 방언형이다.⁶⁾

- (2) 고 : 더름 <경북>
 고 : 더름 <경남>
 고 : 두름 <경북>
 고 : 드림 <경북>
 고다름 <경북>
 고더름 <강원> <경남> <경북> <충남> <평북> <전남>(해남)
 고더름 <경남> <경북> <전남> <평북>(강계, 정주, 초산) <황해>
 고도름 <강원> <경남> <경북> <전북> <전남>(구례, 강진)
 <충남> (논산, 서천) <충북>(옥천, 영동)
 고도름 <경북> <전북> <전남>(광양, 장흥)
 고도름 <전북> <충남> <전남>(진도, 고흥)
 고두름 <경남> <경북> <함남>
 고두름 <경기>
 고두름 <경기> <경북> <충북> <강원>(강릉) <경남>(창원)
 <전남>(곡성, 함평, 여수) <충남>(태안) <평북>(운산, 귀성, 구성, 정주, 선천, 용천, 신의주, 의주, 삭주, 벽동) <평남>(중화, 평양, 대동, 용강, 강동, 성천, 양덕, 맹산, 영원, 덕천, 개천, 순천, 평원, 안주)
 고두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전남>(영광, 장성, 나주, 무안, 화순)

5) ‘고드름’의 형태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된다.

6) 이들 방언 예들은 곽충구 외(2001)에서 정리한 것이다.

고드램 <경기> <경북> <평남>

고드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평남> <평북>
<함남>(문천)

고드름 <경기> <전북> <전남>(담양) <충북>(청원)

(3) 고조름 <함남>(정평)

고조름 <함남>

고조름 <함남> <함북>(경성)

고주름 <함남> <함북>

고주름 <함남> <함북>

고주름 <함남>

고즈름 <강원> <함남>

고지름 <경북>

고지름 <강원> <함남> <경북>

고지리 <함남>(북청)

위의 예 가운데 (2)가 앞에서 제시한 ‘* 고더름’ 계열이라면, (3)은 이와는 다른 계열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의 것들이다. (3)은 주로 함경도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함경 방언이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들을 ‘고드름’의 古形과 관련된 어형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렇다면 ‘곶어름’의 ‘곶’은 ‘곶’이 아니라 ‘곶’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곶어름’의 ‘곶’이 본래 ‘곶’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3)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 고저름’으로 소급한다. 말할 것도 없이 ‘* 고저름’은 ‘곶’과 ‘어름’이 결합된 어형이다. ‘고드름’을 뜻하는 제주 방언 ‘동곶’과 ‘동곶’, 강원 강릉 방언 ‘동곶이’, 황해 방언 ‘고지’⁷⁾를 통해서도 ‘고드름’을 뜻하는 단어에 ‘곶’이

7) 황해 방언 ‘고지’는 ‘곶(串)’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추정된다. 물론 ‘고지’가 강원, 함남, 경북 방언인 ‘고지름’에서 제3음절 ‘름’이 탈락한 형태일 수도 있다. 이는

이용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곶’은 무엇인가? ‘곶’은 ‘串’의 ‘곶’으로 보아 틀림이 없다. ‘串’의 ‘곶’은 15세기 문헌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역사가 깊다.

- (4) ㄱ. 중싱을 고재 빼여 굽고 남진 겨지비 두루 안자 모다 머그며 맛
 날써 흐던 사르미니 <월인석보 23:79>
- 나. 흔 고재 다 빼며(一串都穿) <법어 12>

(5) 암림곶 暗林串 <용비어천가 1:36>

(4)에 쓰인 ‘곶’은 ‘끝이 뾰족한 쇠나 나무’ 즉 ‘꼬챙이’의 뜻이다. (5)의 ‘암림곶’은 압록강 변의 한 지역 이름이다. 이 지명에 쓰인 ‘곶’은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는 땅’을 지시한다. ‘갑곶, 장산곶, 호미곶’ 등의 地名에 보이는 ‘곶’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지명에서의 ‘곶’은 ‘곶매, 곶산, 돌곶, 질곶’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다가 아니라 평야를 향해 길게 뻗은 산줄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명에 쓰인 ‘곶’은 바다나 평야를 가리지 않고 ‘길게 뻗어 나온 산줄기’를 두루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꼬챙이’나 ‘길게 뻗은 산줄기’는 ‘길고 뾰족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곶’은 본래 ‘길고 뾰족한 대상’을 폭넓게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곶’은 ‘좁고 길게 뻗은 산줄기⁸⁾’의 뜻으로만 쓰일 뿐 ‘꼬챙이’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꼬챙이’를 비롯하여 ‘꼬치’라는 단어에 밀려나 세력을 잃은 것이다. 20세기 초의 <조선어사전> (1920)에는 ‘곶’으로 당당히 등재되어 있으나, <조선어사전>(1938)에서는 ‘곶’으로 제시하되 ‘꼬챙이’의 옛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꼬챙이’를 지시하는 ‘곶’이 20세기 이후에는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전남 방언에서 ‘고드름’의 ‘름’이 탈락하여 ‘고드’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8) 그런데 사전에서는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육지의 한 부분’만으로 기술하고 있다.

지금 ‘꼬챙이’와 관련된 의미는 일부 합성어 속에서나 확인된다. ‘고드름’의 방언 형태인 ‘*고저름’, ‘꽃’의 類義 競爭語인 ‘꼬챙이’와 ‘꼬치’, 그리고 ‘고깔’과 ‘송곳’ 등이 그들이다.⁹⁾

‘꼬챙이’는 18세기 문헌에 ‘곶창이’로 처음 보인다.

(6) ㄱ. 곶창이 尖子 <동문유해 하: 17>

ㄴ. 곶창이 尖子 <몽어유해 하: 13>

15세기 문헌에 ‘꼬챙이’를 뜻하는 단어가 ‘곶’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18세기의 ‘곶창이’는 ‘곶’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 형태 분석이 쉽지 않다. 김민수 편(1997: 165)에서는 ‘곶’에 접미사 ‘-창이’가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곶’에 접미사 ‘-앙이’가 결합된 형태일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창이’라는 접미사가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곶’에 ‘-앙이’가 결합된 형태가 ‘곶창이’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두 설은 의심스럽다.

백문식(1998: 69)에서는 ‘꼬챙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곶치’에 접미사 ‘-앙이’가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곶치’의 제2음절 모음 ‘ㅣ’가 탈락하여 ‘곶창이’로 나타날 것이 기대되나 그것이 탈락하지 않아 ‘곶창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어느 경우가 되든 口蓋音化의 결과 ‘차’와 ‘챤’의 대립이 상실되므로 두 어형이 混記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곶창이’와 ‘곶치’와의 관계가 한결 가까워진다. 그런데 백문식(1988:69)에서는 파생 과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아쉽다.

한편 ‘창’을 아예 명사 ‘槍’으로 보고 ‘뽕죽한 창’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과연 ‘곶’에 한자어가 결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어쨌든 ‘꼬챙이’의 뜻으로 ‘곶’이 쓰였고, ‘꼬챙이’라는 指示物이 ‘길고 뽕죽한

9) ‘호박이나 가지 따위를 납작하게 썰거나 길게 오려서 말린 것’을 지시하는 ‘고지’도 의미상 ‘곶(串)’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고지’는 ‘곶(串)’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꼬챙이’를 지시하는 합성어를 만드는 데 ‘길고 뾰족한 대상’을 지시하는 ‘꽃’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18세기의 ‘곶창이’는 19세기 문헌에는 ‘곶창이’ 또는 ‘꼬창이’ 등으로 나온다.

- (7) ㄱ. 소곰과 기름에 지와 곶창이에 꿰여 쏜 불에 구어 <규합총서 12>
- 나. 곶창이 木尖 <한불사전 196>
- ㄷ. 거피하고 꼬창이로 만이 썰너 솥에 너허 잠긴 후에 <규합총서 19>

18세기 어형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변화는 제1음절이 된소리로 바뀐 것이다. 이중 ‘꼬창이’가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꼬챙이’로 변한 다음 ‘꼬챙이’로 굳어진다. ‘꼬챙이’는 20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나 확인된다.¹⁰⁾

‘꼬챙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꼬치’ 또한 18세기 문헌에 ‘곶치’로 처음 보인다.

- (8) 곶치 천 串 <왜어유해 하 : 15>

제1음절 ‘곶’은 ‘꽃’의 종성 ‘ㅈ’이 중화되어 ‘ㄷ’으로 바뀌어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는 ‘지’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김민수 외(1997 : 165)에서는 현대국어 ‘꼬치’를 ‘곶(串)’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곶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지’는 지금 일부 지역에 ‘꼬지’로 남아 있다.¹¹⁾ 18세기 문헌에 보이는 ‘곶치’나 현대국어 ‘꼬

10) 총독부 간행 <조선어사전>(1920)에는 ‘꼬챙이’와 관련된 단어가 실려 있지 않다. 반면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에는 ‘꼬챙이’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11) <조선어사전>(1938)에서는 ‘꼬지’와 ‘꽃이’를 함께 제시하여 ‘꼬챙이’의 사투리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 <조선말큰사전>(1947)에서는 ‘꼬지’를 단순히 ‘꼬챙이’의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치'가 방언 형태인 '꼬지'와 같은 것이라면 '곧치'가 '곶(串)'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곶갈’은 15세기 문헌에 ‘곶갈’로 나온다.

(9) ㄱ. 調達인 곶갈을 밧고 五逆 ㅁ슴을 계와 阿鼻地獄애 드러가니
<월인천강지곡 상 : 47>

ㄴ. 곶갈 우횿 빈혀는 머므러 ㅁ렛도다 <두시연해 3 : 15>

‘곶갈’의 ‘곶’은 ‘곶’의 종성 ‘ㅈ’이 자음 앞에서 중화되어 ‘ㅅ’으로 표기된 것이다. 이 ‘곶’은 ‘串’의 ‘곶’임이 분명하다. ‘곶갈’이 ‘위 끝이 뽕죽한 모자’라는 점에서 의미상으로 부합하고 ㅈ聲으로 聲調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갈’은 중세국어 ‘간(冠)’과 의미가 같을 뿐만 아니라 어형도 유사하다. 아울러 성조도 去聲으로 일치한다. 이를 토대로 ‘갈>갯’ 또는 ‘갈>갯’의 변화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곶갈’은 20세기 초까지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지만 18세기에는 ‘곶쌀’, 19세기에 ‘고쌀’로 표기되기도 한다.

(10) 冠 곶쌀 관 <유합 18>(영장사판)

(11) 곶쌀 弁巾 <국한회어 24>

이들 ‘곶쌀’과 ‘고쌀’은 제2음절의 된소리를 반영한 표기이다. 19세기의 ‘고쌀’이 20세기 이후 ‘고갈’로 표기되어 지금에 이른다.

‘송곶’은 16세기 문헌에 ‘송곶’으로 처음 보인다.

(12) ㄱ. 송곶 추 錐 <신증유합 상 : 28>

ㄴ. 송곶 錐子 <역어유해 하 : 17>

‘송곳’은 ‘*손곳’으로 재구된다. ‘*손곳’이 동화 작용과 15세기의 표기 규칙에 따라 ‘송곳’으로 표기된 것이다. ‘*손곳’의 ‘손’은 ‘술다(狹)’의 관형사형이다. 형용사 ‘술다’가 ‘송곳’을 뜻하던 또 다른 중세국어 ‘솔웃’¹²⁾에서도 확인된다. ‘솔웃’은 ‘*솔곳’에서 ‘ㄹ’ 뒤의 ‘ㄱ’이 ‘ㅇ’으로 교체된 형태이다. ‘*솔곳’의 ‘곳’도 ‘곶’으로 소급한다. ‘웃’의 성조가 去聲이어서 ‘곶(串)’의 성조와 일치함을 보인다. 이렇듯 ‘송곳’이 뽀족한 대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성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송곳’이나 ‘*솔곳’의 ‘곳’을 ‘곶(串)’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곶’을 이용한 합성어에는 이들 이외에도 ‘고지, 곶매, 곶뭇, 곶뿌리, 곶섬, 돌곶, 질곶’ 등과 같은 여러 지명도 있다. ‘곶’이 중세국어에서도 쓰였고, 또 합성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을 보면 이 단어가 어느 시점까지 대단히 왕성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꼬챙이, 고깔’ 등에서 보듯 합성어의 선행 요소로 쓰인 경우에는 ‘뽀족함’의 뜻을 더하는 接頭辭的 의미 기능까지 보이고 있어 그 쓰임의 범위가 대단히 넓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로 함경 방언에서 발견되는 ‘*고저름’ 계열 속의 ‘곶’도 같은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저름’은 자연스럽게 ‘뽀족한 얼음’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위는 굽고 아래는 가는 형상을 하고 있는 ‘고드름’의 실제 모습과 정확히 부합하여 믿음이 간다.¹³⁾

요컨대 보수적 성격의 함경 방언에 ‘곶’을 포함하는 단어가 존재하고, 또 그 ‘곶’이 뽀족한 대상을 지시하는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고드름’이 ‘곶(串)’을 포함하는 형태일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아니다. 그리하여 ‘고드름’의 기원형이 ‘*고저름’이 아니라 ‘*고저름’이라는 데에 도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저름’이라는 단어가 중앙어에서 文證되지 않는다는

12) ‘솔웃’은 15세기 문헌에서 주로 발견되고 근대국어 문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송곳’은 16세기 문헌 이후 보이기 시작하여 근대국어 문헌에서 많이 발견된다. ‘솔웃’이 ‘송곳’보다 더 고품형을 추정할 수 있다.

13) 평북 박천 방언 ‘얼음꼬지’, 평남·북 방언 ‘얼음까지’ 등을 통해서도 ‘고드름’을 뽀족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꼬지’와 ‘까지’는 ‘꼬챙이’를 뜻하는 ‘곶’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고지’의 변화형으로 간주된다.

점이다. 그렇다고 ‘*고저름’이 이른 시기의 중앙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시점까지 왕성하게 쓰이다가 새롭게 나타난 ‘곳어름’에 밀려나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한다. 그 기원형의 흔적이 함경 방언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함경 방언에서 ‘고드름’을 뜻하는 단어가 ‘ㅈ’을 포함하되 연결 형태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고드름’의 기원형을 굳이 연결 형태인 ‘*고저름’으로 잡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함경 방언에 보이는 ‘*고저름’ 계열은 ‘곳’의 중성 ‘ㅈ’이 外破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¹⁴⁾ 만약 ‘곳’이 외파되지 않고 內破된다면 ‘*고저름’이 아니라 ‘곳어름’으로 나타나야 정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중성 ‘ㅈ’이 외파되던 시기가 있어서 이에 따라 ‘곳’이 외파되고, 이것과 ‘어름’이 결합되어 [고저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곳(串)’과 ‘안(內)’이 결합된 地名이 ‘고단’이 아니라 ‘고잔’으로 표기되는 것도 ‘ㅈ’의 외파화를 입증하는 또 다른 예가 아닌가 한다.

아울러 18세기 문헌에 보이는 ‘곳어름’에 대해서는 造語論의 관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 ‘곳어름’이 기원형 ‘*고저름’을 직접 계승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곳어름’은 ‘곳’이 內破되던 시기나 지역에서 ‘*고저름’과는 다른 조어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이거나, ‘곳’의 어원을 잃은 상태에서 기본 형태를 ‘곳’으로 잘못 인식한 시기에 다시 조어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근대국어 시점에서 ‘곳’의 의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점에서 어원 상실이 아주 터무니없는 추정은 아니다. ‘곳어름’이 어떤 조어 관점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든, ‘고저름’이나 ‘고더름’이 아닌 ‘곳어름’으로 표기된 것은 ‘ㅈ’의 내파화를 반영하면서 단어 경계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곳어름’이 아주 보수적인 ‘*고저름’ 계열의 단어를 누르고 특정 시기 이후 전면에 부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곳어름’에 대한 단어 경계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連綴 表記 형

14) 이미 이기문(1998 : 80)에서 고대국어에서의 ‘ㅅ, ㅈ’ 등이 音節末 위치에서도 본래 音價를 가지고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

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미 18세기에서 그러한 어형이 확인된다. 19세기 이후는 연철 표기 형태 일색이다.

(13) 그으름 고도름 煙釉子 <방언유석, 해부방언 10>

(14) ㄱ. 고도름 簷凌 <광재물보 5>

ㄴ. 고두름 簷溜水 <국한회어 25>

ㄷ. 고두름 An icicle <한영사전 275>

(15) ㄱ. 바람이 불어서 추로리를 붓잡을 적마다 고두름을 만치는 것처럼 <전차 차장 138>

ㄴ. 그 눈물 방울은 금새 고드름이 되어 눈썹에 매달리는 것 같다. <영원의 미소>

ㄷ. 고드름 : 氷柱 <조선어사전 69>

ㄹ. 고드름 : 눈 녹은 물이 처마 끝, 바위 모서리로 흘러내리면서 얼어 늘어진 것. <조선어사전 114>

(13)의 ‘고도름’은 18세기 후반 문헌, (14)의 ‘고도름, 고두름, 고두름’은 19세기 후반 문헌, (15)의 ‘고두름’, ‘고드름’은 20세기 초반 문헌에 보이는 예이다. 이들 예는 모두 ‘*고더름’으로 소급한다. ‘*고더름’은 문헌에 나타나지 않지만 ‘곳어름’의 또 다른 표기임에 분명하다. [곳어름]으로 발음 나던 ‘곳어름’이 단어 경계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고더름]으로 발음 나자 그것을 ‘*고더름’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는 마치 ‘못안(池內)’이라는 地名이 [몰안]을 거쳐 [모단]으로 발음 나자 ‘모단’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다.

(14)ㄱ의 ‘고도름’은 ‘*고더름’에서 제2음절의 모음 ‘어’가 ‘오’로 변환한 것이다. 이는 제1음절 모음 ‘오’에 이끌린 자연스런 모음 변화이다.¹⁵⁾

15) 그런데 고동호 외(2002)에서는 ‘고도름’을 ‘고도름’에서 ‘오-오-오’와 같은 모음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제3음절의 ‘오’가 ‘으’로 변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3)의 ‘고도름’은 얼음 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을음 덩어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 흘러내려 굳어진 그을음 덩어리를 ‘고드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도름’은 ‘고도름’에서 제3음절 모음 ‘으’가 ‘오’로 변환 것이다. ‘고도름’의 제2음절 모음 ‘오’에 이끌려 제3음절 모음 ‘으’가 자연스럽게 ‘오’로 변환할 수 있다. ‘고도름’이 제1음절 모음에 이끌렸다면 ‘고도름’은 제2음절 모음에 이끌렸다는 차이를 보인다.

(14)ㄴ의 ‘고두름’은 ‘고도름’에서 변환 것이다. ‘고도름’의 제2음절과 제3음절의 모음 ‘오’가 ‘오>우’의 변화에 따라 ‘우’로 나타난 것이다.

(15)ㄱ의 ‘고두름’은 ‘고두름’에서 제3음절의 모음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5)ㄴ의 ‘고드름’은 ‘고두름’에서 제2음절 모음이 달라진 것이다. 제3음절의 모음 ‘으’에 이끌려 제2음절의 모음 ‘우’가 ‘으’로 변환 것이거나 원순 모음 ‘오’와 ‘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우’를 ‘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고드름’ 형태는 20세기 이후 문헌에서 확인된다. <조선어 사전>(1920)과 <조선어사전>(1938)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전반기에 완전히 ‘고드름’ 형태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꽃어름’은 18세기 이후 ‘*고더름’으로 나타나 ‘고도름, 고도름, 고두름, 고두름’을 거쳐 20세기 전반기에 ‘고드름’으로 확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3

지금까지 우리는 ‘고드름’의 기원형이 무엇이며 그 기원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고드름’은 직접 어떤 단어로 소급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문헌과 방언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함경 방언을 토대로 ‘고드름’의 기원형을 ‘*고저름’으로 잡았다. 그리고 ‘*고저름’을 ‘꽃’과 ‘어름’으로 분석하고 ‘꽃’이 기원적으로 ‘꼬챙이’나

16) 고동호 외(2002)에서는 ‘고두름>고드름’의 변화를 후자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좁고 길게 뻗은 산줄기’를 가리키는 ‘곶(串)’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물론 ‘어름’은 ‘氷’의 뜻이다.

그리고 ‘곶갈, 곶창이’ 등과 같은 합성어 속에서는 ‘곶’이 ‘뽕죽함’을 지시하는 요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고저름’을 ‘뽕죽한 얼음’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곶은 얼음’이라는 해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곶’이 이리 시기에 아주 일상적인 단어였고, 또 뽕죽한 대상을 지시하는 합성어에 적극적으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뽕죽한 모양을 하고 있는 ‘고드름’을 지시하는 단어를 만드는 데에도 ‘곶(串)’이 이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조항범(1997 : 324-325)에서 ‘곶은 얼음’ 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제 ‘곶은 얼음’ 설을 버리고 ‘뽕죽한 얼음’ 설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에 어떤 비판이 따를지 모르지만 ‘뽕죽한 얼음’ 설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현대국어의 ‘고드름’은 기원형 ‘*고저름’이 아니라 18세기에 보이는 ‘곶어름’으로 직접 소급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곶어름[곶어름]’에 대한 단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고더름’으로 표기되고 ‘*고더름’이 여러 음운 변화를 거쳐 ‘고드름’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곶어름’에 대해서는 기원형 ‘*고저름’에서 직접 변환 어형이 아니고 ‘*고저름’과는 다른 표기 방식에 따라 표기된 어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고저름’이 이전 시기에 중앙어에 존재하였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존재했다면 그것이 사라진 이유나 시기 등의 문제는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참 고 문 헌

- 고동호 외(2001), 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램(1), 문화관광부/국립국어 연구원.
- 곽충구 외(2000),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대학사.
- 백문식(1998),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三光出版社.
- 徐廷範(1988), “祖語再構에서 본 系 接尾辭,” 虛堂 李東林 博士 停年退任紀念 論叢.
- 徐廷範(2000), 國語語源辭典, 寶庫社.
-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출판사.
- 李基文(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대학사.
- 李翊燮(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李 鐸(1946), “言語의 發達階級上으로 본 朝鮮語의 位置,” 한글95.
- 이 탁(1967), “국어 어원풀이의 일단,” 한글140.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주)탐출판사.
- 조항범(1997),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한국문원.
- 홍윤표(1994), 우리말 뿌리 찾기, 살림70호, 한국신학연구소.